

전기차판 ‘알테쉬’가 온다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불과 1년여전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광고 카피를 앞세운 ‘알테쉬’ 열풍이 국내 중저가 소비재시장을 뒤흔들었다.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위인의 앞 글자를 딴 별칭이 알테쉬다. 이들 3사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일반적 무역이나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 배송하는 ‘직구(직접구매)’ 채널이다. 중국 내의 절대적 생산원가 비교우위에 최소한의 물류유통 비용을 더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다. 이들은 미국을 비롯 전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전문학적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불과 2~3년 사이 업계 판도를 뒤집었다. 미국판 다이소인 1달러숍 달러트리리는 C커머스의 시장잠식으로 막대한 적자를 내며 한때 폐업 위기까지 내몰렸다.

C커머스 3인방이 한국·일본 공략에 본격 나서자 국내 유통업계는 초비상이었다.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는 엄청난 반

향이 일상화됐다. 그도 그럴것이 생활용품 등 대량 생산 제품들의 가격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직구업체 판매가격의 절반 이하 심지어 10분의 1 수준에도 제시됐기 때문이다. 테무의 최근 월간 활성이용자수가 580만명대로 지난해 4월 700만명선에서 그 열기가 다소 식었지만 재점화는 시간문제다.

지난해에는 C커머스에 의한 중국산 저가 소비재의 공습이 있었다면 올해는 내구 소비재가 한국시장을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주자는 BYD, 지리자동차 등이 만드는 전기차다. 전망이다.

중국의 대표 전기차 메이커 BYD는 오는 16일 국내시장에 승용브랜드를 정식 출범한다. 주력 제품인 소형 SUV, 아토3, 해치백 돌핀 등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살피며 순차적으로 공세를 펼 것이다. 지리자동차는 연내에 전시장장을 열고 전기차 지커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진출에 추동력을 더해줄 사건이 공교롭게 지난해에 생겼다. 지난해 12월과 8월에 중국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가 국내 1위 렌터카업체 롯데렌탈(시장점유율 21%)과 업계 2위 SK렌터카

(15%)의 지분 56%와 100%를 각각 1조 6000억, 8200억원에 인수했다. 중국계 자본이 국내 렌터카 시장의 약 36%를 차지했다. 중국 업체들은 두 렌터카 회사를 교두보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2차전지 및 자율주행부문을 집중 육성해온데 이어 완성차의 해외시장 공략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나 EU보다 진입장벽이 허술한 한국시장을 전초기지로 삼았다면 국내 1,2위 렌터카 업체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중국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렌터카 경험’을 통해 해소한다면 법인 시장을 넘어 자가용 시장까지 빠르게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BYD는 최근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에 전기차 10만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독일에서도 최대 렌터카 회사와 6년에 걸쳐 전기차 10만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흘러가는 정황은 전기차판 ‘알테쉬의 공습’이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어떤 제조업보다 심대하다.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주권 확보를 위해 민관의 치밀한 고민이 시급한 때인 것 같다.

/자본시장부장 skc8472@metroseoul.co.kr

‘절단’과 ‘재앙’의 시간이 다가온다



기 지 수 첩
박 태 흥
(정치경제부)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몇년 동안 법정에서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마지막에 무죄를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1월 26일에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가 열린 자신의 모교 서울대를 찾아한 말이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학생의 질문이 들어오자 “제가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 검찰

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 뒤 꺼낸 말이다.

당시 저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던 기자는 ‘원론적인 대답만 해도 충분할텐데 왜 굳이 저런 말을 해서 강의실을 순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검찰의 중립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은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절단’·‘재앙’ 같은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말은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한남동 관저에서 극우 세력과 경호원에 둘러싸여 버티기에 돌입했다. 극우 세력에게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응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변호인을 통해서는 메시지도 꾸준히 내며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 사이 관저 주변은 철조망과 버스로 일종의 요새처럼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완강한 저항에 수포로 돌아갔지만, 법원이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 테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겠다고 관저앞을 서성였지만, 지지층의 눈도장 찍히기에 지나지 않고, 자신들도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없을 알고 있을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물리적 충돌이나 시민의 부상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윤 대통령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 당시 서울대에서 한 윤 대통령의 말중 유일하게 진실되게 다가왔던 ‘절단’과 ‘재앙’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성과를 내야 한다. 그 시간이 앞당겨질수록 시민들의 안정과 평온도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pth285@

오늘의 운세 1월 10일 (음 12월 11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자식이 능력을 인정받으니 날아갈 듯하다. **48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 신경 쓰자. **60년생** 극심한 경쟁은 패배로 온다. **72년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좋으나 빨리 가까워지는 것은 위험. **84년생** 지금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 37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할 일을 찾아보자. **49년생** 정신적 지주는 공부에서. **61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73년생** 자신의 잔재주를 너무 위세하지 않도록. **85년생** 갈 곳이 없으면 집 안 청소라도 할 것.
- 38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0년생** 버가 익듯이 창의력이 번득 빛난다. **62년생**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74년생** 일이 있으면 더울 시간도 별로 없을 듯. **86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
- 39년생**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든 얻을 수 있겠다. **51년생** 시장갈 때 메모를. **63년생** 상사의 비리를 캐고 그만 하지 말고 자신부터 돌아보라. **75년생** 용이 다시 돌아와 얼굴을 내미는 격으로 희망적. **87년생** 물 부족으로 지체가 된다.
- 40년생** 엄동설한에도 김치만 있으면 걱정 끝이다. **52년생** 금전 문제로 이득 발생. **64년생** 역장 무너지지 않게 피싱을 조심. **76년생** 짐은 항기는 머리가 아프니 향수는 사절로 씻는 습관을. **88년생** 종로에서 뽕맛고 한강에 가서 눈 즐기기.
- 41년생** 조금함이 화를 부르지 않게 행동. **53년생** 비행기에 퍼스트클래스가 있듯이 상류층은 있는 것. **65년생** 선택이 잘되어 이득 있다. **77년생** 곧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 **89년생**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약속은 지켜야.
- 42년생** 병도 약도 내 하거나. **54년생** 겨울이 있으나 곧 봄의 소식이 올 것. **6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78년생** 횡단보도 건널 때 사람이 우선이어서 핸드폰은 건네서 보라. **90년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니 팔자를 펼쳐보는 것.
- 43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5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 **67년생** 인생하다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지 않도록. **79년생** 나만 상처받는 것이 아님을 인식. **91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로 달래보는데.
- 44년생** 바람이 불어도 다 흔들리지 않는다. **56년생** 길이 멀어도 시작. **68년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풀어내는 해법도 다른 법이니 누구 원망 마라. **80년생** 마음이 혼란할 때는 독서로 길을 찾아보자. **92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자.
- 45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57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69년생** 실력이 있다면 두려울 것도 없다. **81년생** 희망에는 고리가 없으니 내가 찾아야 하는데 살다보면 할 수 없는 것. **93년생** 계단에서 발목 조심.
- 46년생** 목표가 생긴 것으로도 발전은 다시 거듭된다. **58년생** 새에게 날개가 없다면 어찌해야 하나 생각해볼 것. **70년생** 지나친 절약으로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82년생** 의문이 든다는 것은 신념이 없기 때문 아닐까. **94년생** 새로운 희망을 품자.
- 47년생**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다는 징표. **59년생** 자녀들이 반려동물을 때리지 않도록. **71년생** 늦은 재혼은 백두어신(白頭如新). **83년생** 강남제비는 봄에 오고 기러기는 떠난다. **95년생** 어찌할 수가 없을 때 운수소란이라는 말을 한다.

김상회의四季 사주 활용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다. 관과 살이 혼란하게 뒤섞인 관살혼잡 사주인데 관이 어지럽다 보니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다. 식신 상관의 기운이 강해서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하기 원하는 성향이라 사업을 하는 건 괜찮아 보인다. 문제는 운세가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기는 움직이면 손해를 보는 운세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운세의 좋고 나쁨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작한다. 다음은 사업 시작을 일단 미루는 것이다. 또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고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시작한다.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차이 날 것이다.

사주와 연관된 운세를 보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일기예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사주에서는 비가 올 것이라고 했고 곧 비가 왔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레도 그냥 길을 가면서 내리는 비를 모두 맞는다.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길을 나선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서 행동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우산을 챙긴다. 우산을 챙겼으나 걸어가면서 비에 조금이라도 젖는다. 사주의 활용에 따라 풍파는 어느 정도 피해서 갈 수 있다. 우산을 챙기거나 조금 늦게 길을 나서는 방법으로 비를 피하거나 잠시 젖는다.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운세가 좋지 않은 시기라면 그에 알맞은 대비를 하면 된다. 여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주를 보는 것이다. 나쁜 운세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단단히 대비하고 시작하면 타격을 피할 수 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사주를 운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나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94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